

월요광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우석대 석좌교수

고종 16년 1879년 정월(음력), 조선의 마지막 최고 성리학자 노사 기정진(1798~1879)은 노환으로 몇 달 동안 병석에 있었다. 어느 날 조금 기력이 회복되자 노사는 자신이 이룩한 최고의 학문적 업적인 두 개의 논문을 살펴보았다. 하나는 '납양사의'(納陽私議)이고 다른 하나는 '외필'(猗筆)이라는 장문의 논문이었다. 크게 잘못된 것이 없었다. 확신을 얻고 마침 곁에 있던 세 분 제자에게 보여 주면서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대곡 김석귀(金錫龜), 노백헌 정재규(鄭載圭), 일신재(日新齋) 정의림(鄭義林 1845~1910)이 바로 그 분들이었으니 이른바 '노문삼자'(盧門三子)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왔다. 조선의 대유(大儒)로 독특한 유리론(唯理論)을 제창한 기정진의 학문을 이어 준 3대 학자가 바로 그들이었다.

꿈꾸는 2040



김대현  
위안연구원장·시사평론가

지난달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을 했고 거리 투쟁을 선언했다. 그 중심에는 황교안 대표가 있다. 14년 전 참여정부 시절 상황도 마찬가지로 지다. 4대 개혁 입법 과제 중 하나인 사립 학교법이 당시 한나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05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당시 박근혜 대표는 날치기를 주장하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섰다. 거리 투쟁 53일을 포함한 장장 100일 동안 국회는 대치 국면이었고 결국 한나라당의 승리로 사립학교법은 재개정되었다. 이후 이어진 지방선거 국면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이끄는 한나라당은 여세를 몰아 압승을 거뒀고 재·보궐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박근혜 전 대표가 나서면 모두 이기는 결과를 낳았다. 이때부터

기고



주상원  
국립기상과학원장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거대한 탑의 불타는 눈으로 형상화된 '사우론'은 땅의 구성요소를 내다볼 수 있고, 만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땅의 중심이 우뚝 서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와 같은 '사우론의 눈'이 보성에도 있다. 보성에 가면 광활한 농경지 한가운데 지상부터 300m 높이까지 솟아오른 우리 나라 대기를 관측하는 '종합기상관측탑'(이하 종합기상탑)을 볼 수 있다. 이 종합기상탑은 높이 307m로 63빌딩(249m)보다 높고, 에펠탑(324m)보다 약간 낮으며,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높다. 종합기상탑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온도와 습도, 바람 등 대기 환경

노사학의 최고 계승자 정의림(鄭義林)

물론 부르지 않더라도 늘 노사의 곁에 있던 친손자 송사 기우만(奇宇萬)은 세 학자들에게 내리지 않는 노사 학문의 후계자였으나 손자이기 때문에 3인 속에는 끼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송사까지 합해서 '노문사자'(盧門三子)라고 불리야 정당함에도 가족이기 때문에 거명하지 않았다. 다만 정재규의 여러 글에서 노사 문화에서 공부하며 얻은 친구가 셋이 있었다면서 김석귀·정의림·기우만을 거명하였으니 네 사람을 노사 학문을 이은 제자로 규정했다고 여길 수 있다. 김석귀는 노사 사후 오래 되지 않아 51세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노사 학문의 진수를 알릴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경상도 출신 정재규와 호남의 화순 출신 정의림은 노사의 학문이 율곡 이이의 성리설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온갖 비방을 일삼는 무리로부터 공격받았다. 그 중에 간재(良齋) 전우(田愚)가 유독 앞장서서 '납양사의'와 '외필'을 지어 노사 학문을 율곡이이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에 정재규와 정의림은 각각 영남과 호남에서 그들의 덕없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노사의 학문은 율곡이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하여 밝혔을 뿐이지 율곡의 학설에 반대하거나 낮게 여겼던 것

이 아니라고 강력히 대응하였다. 정의림은 '변전우소서 노사선생 납양사의 기의'(辨田愚所著蘆少先生納涼私議義疏)라는 장문의 글과 '변전우소서 노사선생 외필'의(辨田愚所著蘆少先生猗筆)이라는 높은 성리철학으로 노사의 학문이 율곡의 학문을 보완했을 뿐,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판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극구 변론하여 비방자들의 입을 막게 했던 큰 공로를 세운 학자였다. 오늘의 우리로서야 성리론(性理論)이나 이기설(理氣說)에 대하여 논란할 실력이 없다. 고도의 철학인 노사의 '납양사의'나 '외필'의 옳고 그름을 감히 누가 거론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당시나 지금에 이르도록 그런 학설은 바로 조선 성리학의 이론을 대표하는 학설로 이미 인체의지를 길러냈고 제자의 제자들까지 879명에 이르는 거대한 학단을 형성해 대학자의 반열에 올랐다. 성리학자로서의 정의림은 거기에 그

치지 않고 노사의 척사위정 정신을 이어 받아 외세를 물리치고 정통의 유학 사상을 지키며, 일제의 침략에 맞서 강고하게 투쟁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단발령이나 변복의 잘못된 조치에 반발하여 조선의 선비로서의 품위를 하나인들 잃지 않고 옳오르게 조선 혼을 지켰던 학자였다. 많은 제자들 중에서 유독 학문이 높았던 여섯 명의 제자와 함께 칠송사(七松祠)라는 사당에 모셔졌다. 지금은 많은 율림들이 제학을 울리려 고산사원에 도배향되어 추앙을 받고 있다. 그는 먼저 세상을 떠난 막역했던 친구 대곡 김석귀를 위해 '김대곡전'(金大谷傳)을 지어 그의 죽음을 슬퍼했으며 그의 학문의 깊이와 인품의 높음을 기술한 바 있다. 막역한 친구 송사 기우만은 정의림의 '행장'(行狀)을 장문으로 지어 그의 일생을 유감없이 서술하고 그의 학문과 철학에 대한 높은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 정재규·김석귀·정의림은 세 사람이면서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이면서 세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정의림이 김석귀에 비친 인간과 학문에 대한 찬사를 그대로 정의림에게 바쳤다. '천덕(天德)과 왕도(王道)에 체용(體用)이 있고, 넓고도 잡됨이 없고 번거로우면서도 문란하지 않았다'라는 평가였다.

社說

저들이 '독재자의 후예' 소리 듣지 않으려면

18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 5·18 민주화운동 제39주년 기념식. 전날부터 내리던 비는 잦아들었지만 식이 시작되면서 금세 빗물을 대신한 것은 눈물이었다. 특히 39년 전 고등학생아들을 잃은 노모의 사연이 소개되자 행사장은 눈물바다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에도 눈시울을 적시는 시민들이 많았다. 문 대통령은 "80년 5월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하지 못한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미안하다"며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 폭력과 학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의 말 중 특히 깊은 여운을 남긴 대목이 있다. "5·18의 진실을 보수·진보로 나눌 수 없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라고 강조한 부분이다.

과연 누가 독재자의 후예들인가? 나경원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을 최초로 인정한 것은 자유한국당 출신 김영삼 대통령"이라며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의 말이 맞다면 자유한국당은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한국당은 전두환의 후예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여야 합의로 지난해 2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조사위원 추천 지연, 무자격 위원 추천 등으로 조사 위 출범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5·18 망언자 징계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5·18은 불의와 독재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내고자 한 숭고한 시민운동이다. 법정에서까지 이미 결론이 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 큰 획을 그은 역사적 사건이다. 따라서 한국당은 조사위 출범 협조 및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신속 처리 등 5·18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 그것만이 자신들이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 는 걸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다.

평범한 시민들 '오월 정신' 알리미로 나섰다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평범한 광주 시민들이 일상 속에 오월 정신을 녹여 내고 실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오월의 진실을 알리는 염서를 직접 제작해 다른 지역을 찾아 나눠 주거나 대동(大同) 정신을 담은 주먹밥을 판매하고 남은 수익금을 기부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박세연(26·조선대), 박화경(여·25·조선대), 김윤서(여·24·전남대) 씨 등 지역 대학생 세 명은 그제 부산 해운대구에서 5·18 알리기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파랑새가 소녀를 안고 있는 그림염서 등을 직접 만들어 현지 주민들에게 나눠 주었다. 김밥 전문점을 운영하는 황지훈(39) 씨는 지난 16~18일 '착한 밥이 총

칼을 이긴 밥'을 주제로 5·18 주먹밥 이벤트를 진행했다. 1980년에 태어난 황씨는 항쟁 기간 광주 시민의 한 끼 식사였던 주먹밥을 재현해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을 5월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 양동(大同) 정신을 담은 주먹밥을 판매하고 남은 수익금을 기부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박세연(26·조선대), 박화경(여·25·조선대), 김윤서(여·24·전남대) 씨 등 지역 대학생 세 명은 그제 부산 해운대구에서 5·18 알리기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파랑새가 소녀를 안고 있는 그림염서 등을 직접 만들어 현지 주민들에게 나눠 주었다. 김밥 전문점을 운영하는 황지훈(39) 씨는 지난 16~18일 '착한 밥이 총

문재인의 길, 황교안의 길

'선거의 여왕'이라는 애칭이 붙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학법 재개정을 합의해주었다는 이유로 같은 여당과 진보세력 내에서 공격을 받았다. 억울했을 것이다. 당시 4대 개혁 입법을 주도한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면 노무현이었지만 '좌측 깡배이'를 켜고 우회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종교 집단까지 합세해 일사불란하게 사학법 재개정 투쟁을 벌였고 성공했다.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졌지만 내부는 무기력했고 분열되어 있었다. 황교안 대표의 길은 명확하다. 박근혜를 통해 2006년을 보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을 통해 2006년을 보았다. '여개인 2006년'을 외치며 같은 길을 걷겠다는 황교안 대표와 다시는 개혁 과제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길이 보인다. 황 대표는 14년 전처럼 박근혜 대표가 걸었던 거리 투쟁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이어지는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상황이 비슷하다고 조건까지 같을 수는 없다. 선거의 여왕 박근혜 전 대표의 뒤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산이 있었지만 황교안 대표의 뒤에는 공안 검사 출신이라는 낙인이 있다. 박근혜를 통해 박정희 향수를

불러오는데 성공했지만 황교안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총리로 박근혜의 편도, 그렇다고 야당의 편도 아니었다. 또한 황교안 대표는 법조인 출신으로 관료의 길을 걸었다. 정치는 초년생임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의 대표로 등극하는 천운을 얻었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아무 것도 검증되지 않았다. 자신이 공안 검사 출신임에도 '좌파 독재'를 외치며 거리로 나와 투쟁하는 촛극은 아무리 정치가 소리지만 목불인견(目不忍見)이 따로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수와 진보 양측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봤던 비서실장 출신이다. 개혁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보수 정권 10년에 그는 노무현의 친구 참여정부 비서실장으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10년 정권을 내주었다는 비난의 대상자에서 오늘날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가 복기해 본 정치적 상황은 명확하다. 이대로 내년 총선을 맞을 경우 역풍을 우려하고 있고 바로 레임덕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뒤늦은 개혁 과제지만 이 또한 과거처럼 실패한다면 이후 정국 상황이

나 재집권은 물 건너간다는 것쯤은 학습 효과를 통해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의 길은 황교안의 길과 같으면 서로 다른 극과 극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아쉬운 점은 있다. 개혁은 가감 할 일을 때 밀어붙이는 것이라는 주장을 필자는 정권 초기부터 해왔다. 대통령 지지율 80%일 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최고 지지율이 50%일 때 개혁 과제를 남북 문제와 함께 병행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개헌 문제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한 자리 숫자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당시 국민의당, 정의당을 포함하면 국회 선진화법을 뛰어넘는 180석 이상의 개혁 연대가 형성될 수 있었고 모든 개혁 입법들을 그때 처리했어야 했다. 그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과거 국민의당 모두에게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에 취해있었고 국민의당은 분열되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쪼개지면서 왜소해졌다. 기회를 놓쳐버린 상태에서 개혁을 밀고 나가는 힘은 당연히 숨겨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박근혜의 길을 황교안 대표가 따라가게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無等鼓

서기 676년 중국 당나라의 사찰 제지사(制止寺)에서 태어난 논쟁이 벌어졌다. 절 마당에서 펼쳐지는 깃발을 두고 사람들이 두 패로 나뉘어 시비가 붙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깃발이 흔들린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바람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결론이 나지 않자 사람들은 때마침 이 절에 묵고 있던 선종(禪宗)의 대종사 혜능(慧能) 스님에게 답을 물었다. 곧바로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다. 흔들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일갈이 떨어졌다.

이 아닐 성싶다. 지난주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했다는 발언이 관심을 끌고 있다. 문 총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 도중 "검찰이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양복 재킷을 벗어 흔들었다. 그러면서 "뭉가 흔들리느냐. 옷이 흔들린다"며 "흔드는 건 어디냐?"고 되물었다. 문 총장은 "외부에서 검찰의 중립을 흔들리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 흔들릴 때 어느 부분에서 시작하는지를 잘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흔들리는 재킷

이 장면은 그로부터 13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구에 회자될 만큼 유명한 것으로, 흔히 '바람과 깃발의 문답'으로 불린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야 일도양단·단도좌익하는 선(禪)의 경지를 깊이 들여다볼 순 없을 터다. 하지만 이 문답이 '깃발과 바람과 마음이 서로 연계되어 있을'을 설명한 것이라면, '사물은 오직 상호작용 속에서만 나타나며, 자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언제나 상호작용하는 것'이라는 오늘날 최첨단 양자역학 이론과 맥이 닿아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닐 성싶다. 지난주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했다는 발언이 관심을 끌고 있다. 문 총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 도중 "검찰이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양복 재킷을 벗어 흔들었다. 그러면서 "뭉가 흔들리느냐. 옷이 흔들린다"며 "흔드는 건 어디냐?"고 되물었다. 문 총장은 "외부에서 검찰의 중립을 흔들리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 흔들릴 때 어느 부분에서 시작하는지를 잘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동 선형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취부	220-0632	체육부	220-0633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전남본부	220-0642		
		경원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